

한상길

김순석

김종인

이동언

고영섭

김상영

황인규

김광식

“친일과 불교근대화 功過, 모두 보아야”

만해학회, 7월 31일 ‘만해 한용운과 허영호’ 세미나서 격론

지난 2010년 친일행적으로 인해 서훈이 취소된 허영호 스님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허영호 스님은 1919년 부산 범어사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는 등 일제 초기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이후 1930년대 일제 식민정권을 미화하는 글을 쓰는 등 친일행보를 걸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가 7월 3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만해 한용운과 허영호’ 세미나에서는 제점숙, 황인규, 김광식, 김상영, 고영섭 등 한국불교사를 연구자들이 모여 허영호 스님에 대한 재조명을 진행했다.

먼저 발제자들은 허영호 스님의 친일행

각이 이뤄진 1930년대의 활동에 주목했다. 이들은 <불교성전> 편찬 등 불교근대화를 위한 모습 등을 평가했다.

제점숙 동서대 교수는 허영호 스님의 1930년대 활동을 통불교 사상에 의한 신 불교운동이라고 평했다.

제 교수는 허영호 스님이 통불교 사상을 통해 조선불교 개혁을 꿈꿨음을 밝히고 “일본 유학 이후 불교학에 전착하며 남긴 글에서 불교개혁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도 “육당, 춘원, 효성 등 불교지식은 모두 원호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허영호의 불교관도 원호의 통불교에 깊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

규 동국대 교수도 “친일과 항일이라는 이분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은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불교 근대화와 민족수호를 위한 저항과 협력의 삶”이라고도 평가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만해와 허영호는 일본의 근대불교가 지니고 있던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허영호 스님이 편찬한 <불교성전>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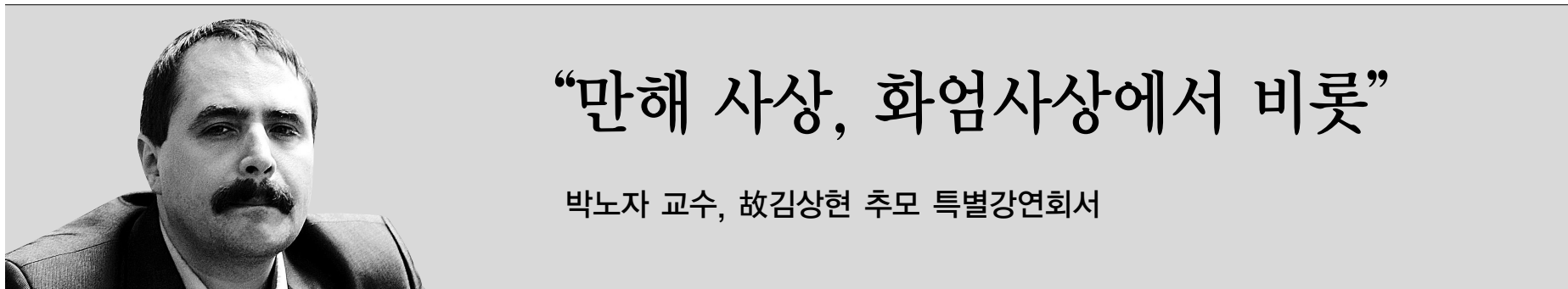
김 교수는 “1925년 간행된 <신역불교성전>은 이전 <불교성전>과는 달리 성전 보급이 활발히 전개됐다”며 “국내에도 적극 배포됐는데 조선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강독회가 개최될 정도였다. 여기에 조선불교단과 성전보급회가 각 학교에 성전보급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김종인·이동

언 등 학자들은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순 연세대 교수는 “춘원 이광수도 반민특위 심판에서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다’는 논지를 폄하며 ‘일부인사라도 일본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민족의 위기를 모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친일파의 자기변명과 중첩된다”고 비판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도 “불교개혁을 위한 학자로서의 모습은 일본 유학 전후 식민시대 장기화에 대한 자포자기의 불려온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도 “불교성전은 불교 보급을 지향하는 점에서 일정 의미가 있었지만 일제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역사의 서술에서 불교근대화와 침략의도 두 사실을 모두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 사상, 화엄사상에서 비롯”

박노자 교수,故김상현 추모 특별강연회서

일제 치하에서 당시 한국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만해 스님의 사상 이면에 <화엄경>에 근거한 현대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7월 28일故김상현 교수 추모 국제석학 초청강연회에서 “<화엄경>에 대한 만해 스님의 해석은 당대 일본에서 유력했던 국가주의 해석과 정반대로 자유와 평등, 박애 위주로 진행됐다”며 “화엄과 참선의 결합은 만해 불교의 근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당시에는 화엄학 열풍이 대중들 사이에서 크게 불었다. 1920년대에는 여러 지방에서 화엄법회가 열렸으며, 이 같은 화엄학에의 관심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박 교수는 “식민지시대 화엄학 붐의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만해였다”며 “2년간의 노력 끝에 1914년 내놓은 <불교대전>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많이 인용됐다. 만해는 저본인 정토신종 계통의 <불교성전>에 비

해 화엄학을 훨씬 더 중시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만해가 <화엄경>을 빌어 주장하고자 한 것은 ‘총체의 진리’로서의 불교였다”며 “자비심과 지혜, 해탈에 있어서 부처의 절대성이나 초월성은 선교사들이 도입한 기독교에서의 예수의 절대화된 모습에 대응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만해는 불교 내의 중생평등관은 근대적 ‘평등’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 밖에도 해탈을 근대적 개념의 ‘자유’와도 결부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만해 스님이 <불교성전>에 <화엄경> 중 영의 선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불교와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만해는 중국불교 개혁론자인 태허를 언급하며 일본의 국가주의적 불교에 비해 그 구세주의가 돋보이는 면을 높게 평가했지만 태허는 사실 더 체제 친화적이었다”며 “한용운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며 해방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착한 근대’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만해 스님이 결혼해 자녀를 낳은 이후 비구종단인 조계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탐탁치 않았지만 만해의 그들은 여전히 크기에 상징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녀평등, 빈부격차 해소 등의 평등 실천에 조계종이 얼마나 기여한지에 대해 살펴볼 때 만해가 제시한 이상이 오늘날 한국불교의 실정과 얼마나 멀리 떨어지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대전에서 화엄경 가장 많이 인용 근대적 평등과 자유개념 화엄사상서

이날 강연회에서 이시이 코세이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는 ‘신라 화엄종에서의 악의 문제’에서 <화엄경문답> 속에 장자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이는 의상 스님의 스승인 지엄 스님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1985년 이시이 교수는 <화엄경문답>이 중국 법장 스님의 저술이 아니라 신라 의상 스님의 저술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김상현 교수가 심화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화엄경문답>은 이시이 교수는 “<화엄경문답> 속에는 <장자>에서 나오는 대립적 견해에 의한 다름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드러난다”며 “의상의 저작에는 <장자>에 의거한 곳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이 논의는 스승인 지엄의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이 교수는 “지엄의 경우 답전의 ‘시비의 대립을 넘어야 한다’는 답전의 당시 비론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성기품명성기장>에 그대로 게재했다. <도신장>, <법응기>에도 선악의 상대성에 대한 지엄의 말은 인용되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시이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경우 한 중일 불교에 있어 석양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라와 당의 관계, 그리고 이후 일본 불교학에 까지, 이 서적에 의한 영향은 지대하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부탄 무형문화유산 도서 발간

문화재청, 4년간 성과...29일 출판기념회·세미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허권)와 공동으로 불교국가 부탄의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부탄 무형유산 도서(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hutan)를 발간했다.

문화재청은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활용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탄 무형유산 정보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4년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부탄의 16개 지역 내 약 300여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인 부탄 무형유산 도서가 부탄어와 영어 2개 언어로 발간됐다.

이 책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분류 기준에 따라 부탄의 무형유산을 5개 영역으

로 나눠 소개한다. 제1장은 언어, 격언, 속담, 민담, 전설, 노래 등 부탄의 구전 전통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는 가면무, 민속무, 왕실 가무, 고전무 등 부탄의 공연예술과 전통놀이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제3장에서는 부탄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통 관습과 종교의식, 의례, 축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전통 의술, 민간요법, 점성술, 민속기상학 등 민간에 전해지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세부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은 13개 공인 분야를 중심으로 부탄의 전통공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7월 29일 부탄의 수도 팀부에서 출판기념회와 함께 남아시아 무형유산 지역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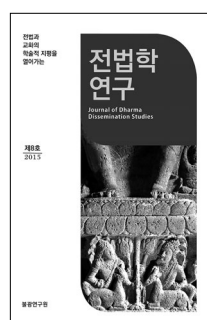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불광연, 전법학연구 제8집 발간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흥)은 최근 전법·표교학술지 <전법학연구> 제 8집을 펴냈다. 이번 <전법학연구> 제 8집을 펴냈다.

이번 전법학연구는 ‘한국종교지형의 변동’, ‘불교와 공유사회’, ‘초중고사회 교과서의 불교서술 체계와 내용’ ‘광덕사상’의 4가지 대주제에 맞는 12개 논문이 수록됐다. 세부적으로는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의 ‘한국인의 종교관 변화추이 분석’ △박수호 덕성여대 연구 교수의 ‘불자들의 태도와 종교생활’, △

안진환 인트렌스 대표의 ‘공유경제의 논리와 공유사회의 미래’ △차차석 박사의 ‘불교사상과 전통을 통해 본 공유사회’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의 ‘협력적 공유사회를 향한 변화와 무소유 사회’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종단 역사를 기록하다

보문사의 역사를 다룬 <대한불교보문종 보문사 사지(大韓佛敎普門宗 普門寺 寺誌)>가 최근 발간됐다. 사찰 창건 이래 흘러져 있던 낱알의 사료들을 한데 모아 역사를 복원해 낸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문사는 조선시대 왕실 출신 여성들이 주로 출가한 곳이다. 해방 이후 1972년 보문사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사찰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보문사를 격상시켜 ‘대한불교보문종’을 창종한다.

이번 책에서는 보문종을 창종한 금강스

님을 비롯해, 현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우담바라회’ 초대회장이자 현대 보문사 중흥을 이끈 은영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선대(先代)스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짙은 어둠 속에서 아픔을 견뎌냈기에 대한불교보문종 보문사라는 결정체를 일궈냈다”며 “선조들 정신을 받들어 더욱 신심을 증강해 불도를 성취할 것을 굳게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연, <불교학리뷰> 등재지로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의 <불교학리뷰>가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불교학리뷰>는 2006년 2월 창간돼 현재까지 17호가 발간됐다. 기존 불교학계 학술지와 달리 문헌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논문과 고전 문헌 연구 등을 게재해 오

고 있다. 박창환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교학계의 대표적 등재(후보)지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며, 등재지 선정과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 만큼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에 어떤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배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배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